

# 역량 인식을 통한 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교육요구도 탐색

엄미리<sup>1\*</sup>, 최원주<sup>1</sup>, 송윤희<sup>2</sup>  
<sup>1</sup>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 <sup>2</sup>안양대학교 교양대학

## Exploring the Educational Needs of Learning Supporting Program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Current Competencies and Important Competencies

Mi-Ri Eom<sup>1\*</sup>, Won-Ju Choi<sup>1</sup>, Yun-Hee Song<sup>2</sup>  
<sup>1</sup>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Kwangwoon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역량을 선별, 그 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이메일 발송)과 오프라인 방식(서면 설문)을 병행하여 수집된 1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Borich 공식을 활용한 교육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3개 영역, 10개 역량별 역량 중요도와 역량 수행도 인식 차이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2) Borich 공식을 활용하여 10개 역량별 전체 교육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전공분야 지식'이 1순위, '창의성'이 2순위, '문제해결력'이 3순위, '글로벌 역량'이 4순위, '테크놀로지 역량'이 5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역량과 교육요구도에 따른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평가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실제적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학습자 역량,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육요구도, 교수-학습, 교수학습센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needs of learning supporting program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current competencies and important competencies.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the online type (e-mail survey) and the offline type (printed survey) with survey instrument developed by researcher. Survey instrument was composed of 3 categories and 10 competencie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1.0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And 159 cases were analyzed finally. The paired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performance of students' competencies. The educational needs of learning supporting program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Borich's formul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first, 3 categories and 10 competenci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statistically. The second, The high ranks of the educational needs of learning supporting program were 'Major field knowledge', followed by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Global capability', 'Technology capability' in sequ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ed the authentic needs of students will be used a basic data to establish the curriculum for learning supporting program.

**Key Words** : Students' Competency, Learning Supporting Program, Educational Needs,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Mi-Ri Eom(mreom@kw.ac.kr)

Received May 21,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1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 1. 서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수행력을 보이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읽기, 쓰기, 셈하기만 잘하면 되던, 그 역량이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고차적 사고능력을 겸비하는 것은 물론 타인 및 세계와 잘 소통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1].

역량이라는 개념은 기업을 포함한 조직 또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또는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확장된 개념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역량의 개념과는 다른 교육상황에의 학습자 역량, 학습역량, 핵심역량 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졸업 후의 진로와 연계하여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규정하고 역량을 개발,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상황에서 역량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규정된 역량을 통해 학습자들은 대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교육경험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2], 더욱 역량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향상시켜 줄 수 있는 지원체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학습법 특강, 워크숍, 학습공동체 등 특히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 모든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연구 진행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ctl.org/>) 내 약 190여개 회원교(교통대, 항공대, 신학대, 체육대, 사이버대학 등 특수 목적대학은 제외함)의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단편적·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종의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흐름, 방식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도나 자신의 역량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역량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사례와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대적 변화, 국가적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이 변화해야 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해 주고,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3]. 이에 무엇보다 학습자 역량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하고, 그 역량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인식 차이를 조사,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교수학습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각 역량별 역량 중요 수준과 역량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각 역량별 역량 중요 수준과 역량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대학교육과 학습자 역량

1973년 사회심리학자 David McClelland에 의해 ‘역량’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역량의 개념을 수행 수준이 탁월한 성과자와 수행 수준이 보통인 성과자를 구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 능력이라고 정리하였다[4]. 그 뒤로 많은 학자들이 역량에 대한 개념들을 정의를 내렸는데, Jacobs는 역량이란 효율적으로 또는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를 내렸고[5], Spencer와 Spencer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를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 내적 특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6].

과거에 역량은 직무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1997~2003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역량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량은 특정 맥락에서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도 간주한다[7].

국내 대학생 역량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김안나와 이병식은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조하였고[8], 손민호는 지식의 소유를 넘어 사회적 환경(social ecology)에 대한 개인적 수행성(performance)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9]. 한편 진미석 외는 역량을 직업능력의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10].

이렇듯 대학교육상황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의 개념은 인지적인 영역에만 또는 정의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그 영역이나 분야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본인 스스로 탐색하고 개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학습자 역량은 진로계획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원되어야 하겠다.

## 2.2 대학생 학습자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교육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 역량을 규정하고, 역량 수준 및 요구 수준을 파악한 연구들이 많다. 대학생의 경우, 초중등학생과 다르게 졸업후 직업 또는 진로와 연계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추고 있어야 할 학습자 역량, 핵심역량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하다. 국내에서 진미석 외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로 [10], 김동일 외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가치관과 태도로 [11], 유현숙 외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협동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12]. 이에 반해 국외에서 OECD DeSeCo는 1) 도구의 상호적인 활동: 1a. 언어, 기호, 문장 활용능력, 1b. 지식과 정보 활용능력, 1c. 기술 활용능력, 2) 이질적인 그룹 내에서의 상호작용: 2a. 타인과 연관시키는 능력, 2b. 협력과 팀워크, 2c.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3) 자율적인 행동: 3a. 전체적 맥락 내에서 행동하는 능력, 3b. 생애 계획과 개인적 과제를 수립, 실행하는 능력, 3c. 개인의 권리, 관심, 한계, 요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능력으로[7], 호주 시드니 대학은 커뮤니케이션, 정보문해력, 연구와 조사, 개인적·지적 자율성, 윤리적·사회적·전문가적 이해로, 미국 알버노 대학교는 의사소통능력, 분석능력, 가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글로벌 안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효과적 시민, 심미적 참여로 구분한 바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여 분류한데 반해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생애진로환경에서 도출된 역량들을 공유하면서 고차원적인 인지역량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2,10].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소재 K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센터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 10월 1일~10일 약 10일간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응답자료를 얻었으며, 온라인 방식(이메일 발송)과 오프라인 방식(서면 설문)을 병행하였다. 수합된 162부 중 응답을 하나의 답으로 일관한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적절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총 1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109명(68.6%), 여자 50명(31.4%)이며, 나이 평균 23.6세이다. 학년은 1학년 28명(17.6%), 2학년 40명(25.2%), 3학년 42명(26.4%), 4학년 49명(30.8%)이며, 계열은 인문계열 20명(12.6%), 사회계열 72명(45.3%), 자연계열 67명(42.1%)이다.

### 3.2 연구변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역량들 중에 학업과 진로와 연관된 것으로 [7,11,12], 특히 학업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진로와 연계되어 대학생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선별하고, 설문 문항을 재구조화하였다.

학습자 역량을 크게 인지영역, 관리영역, 사회영역으로 구분, 인지영역에는 전공분야지식, 고차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4개의 역량, 관리영역에는 자기조절학

습역량, 글로벌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 3개의 역량, 마지막 사회영역에는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3개의 역량을 포함시켰다. 역량 구성(3개 영역, 10개 역량)에 대해 2차에 걸쳐 교육학 박사 3인(교육공학 전공 2인, 교육평가 전공 1인)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학습자 역량 진단을 위한 설문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김연희 외의 연구와 같이 학습자들이 응답한 중요도 점수를 가지고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10개 영역 모두 .75 이상의 높은 신뢰도 값을 가졌다[13].

설문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 학습자 역량에 대해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고, 특히 학습자 역량을 묻는 문항은 크게 3개 영역, 10개 역량으로 구분하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당 역량 중요도와 현재 역량 수행도를 측정하였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학습자 역량의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 Borich 공식을 활용하여 학습자 역량의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인식 차이를 통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14]. 활용한 공식은 Fig. 1.과 같다.

$$\text{Borich's Score} = \frac{\sum (RL - PL) \times \overline{RL}}{N}$$

RL : Required Level  
 PL : Present Level  
 $\overline{RL}$  : Average of Required Level  
 N : Number of Case

Fig. 1. Borich's Needs Analysis Formula

Borich의 교육요구도 계산 공식은 각 개인의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 차이를 모두 합산한 값에 각 역량별 중요도의 평균점수(평균값)를 곱한 다음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상적인 상태(what should be)’와 ‘현재 상태(what is)’ 간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항목 간의 변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5-18].

## 4. 연구결과

### 4.1 학습자 역량별 역량의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

학습자 역량별 역량의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 역량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역량 중요도 평균은 4.21, 역량 수행도 평균은 3.28로 나타났다. 전체 역량의 역량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18.061$ ,  $p<.05$ ).

Table 1.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performance of students' competencies on overall average

Categories	Importance	Performance	t-vale
M	4.21	3.28	18.061*
SD	.623	.449	

\* $p<.05$

인지영역, 관리영역, 사회영역 3개 영역의 역량에 대한 역량 중요도와 역량 수행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역량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3개 영역의 역량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performance of students' competencies in 3 domains

Categories	Importance		Performance		t-vale
	M	SD	M	SD	
Cognitive Domain	4.25	.639	3.11	.525	18.845*
Management Domain	4.06	.713	3.10	.540	16.230*
Social Domain	4.31	.701	3.61	.563	12.239*

\* $p<.05$

인지영역 아래 4개 역량(전공분야지식, 고차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관리영역 아래 3개 역량(자기조

절 학습역량, 글로벌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 사회영역 아래 3개 역량(리더십,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 구분하여 각 역량별 역량 중요도와 역량 수행도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 역량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10개 역량의 중요 수준과 수행 수준의 인식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performance of students' competencies in 10 competencies (I.=Importance P.=Performance)

Categories	Competencies	I.		P.		t-value
		M	SD	M	SD	
Cognitive Domain	Major field knowledge	4.31	.786	2.98	.685	16.841*
	Higher-order thinking	4.18	.712	3.16	.608	15.747*
	Problem solving ability	4.28	.768	3.22	.637	14.533*
	Creativity	4.25	.797	3.05	.808	14.166*
Management Domai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4.14	.817	3.15	.726	14.166*
	Global capability	4.01	.858	2.97	.765	13.544*
	Technology capability	4.03	.868	3.22	.667	10.691*
Social Domain	Leadership	4.30	.764	3.66	.670	9.516*
	Interpersonal skill	4.27	.748	3.55	.732	10.512*
	Communication ability	4.37	.743	3.62	.640	12.144*

\*p<.05

#### 4.2 학습자 역량별 교육요구도

Borich 공식을 활용하여 10개 역량별 교육요구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전공분야지식 (Mi=4.31, Mp=2.98, 교육요구도 5.60)'이 1순위, '창의성 (Mi=4.25, Mp=3.05, 교육요구도 5.08)'이 2순위, '문제해결력(Mi=4.28, Mp=3.22, 교육요구도 4.48)'이 3순위, '글로벌 역량(Mi=4.01, Mp=2.97, 교육요구도 4.38)'이 4순위, '테크놀로지 역량(Mi=4.03, Mp=3.22, 교육요구도 3.39)'이 5순위, 그 뒤를 이어 고차적 사고력, 자기조절 학습역량,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순으로 교육요구도가 나타났다.

Table 4. Educational needs in 10 competencies (I.=Importance P.=Performance)

Categories	Competencies	I.	P.	Education Needs	Order of priority
		M	M		
Cognitive Domain	Major field knowledge	4.31	2.98	5.60	1
	Higher-order thinking	4.18	3.16	4.31	6
	Problem solving ability	4.28	3.22	4.48	3
	Creativity	4.25	3.05	5.08	2
Management Domai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4.14	3.15	4.18	7
	Global capability	4.01	2.97	4.38	4
	Technology capability	4.03	3.22	3.39	5
Social Domain	Leadership	4.30	3.66	2.68	10
	Interpersonal skill	4.27	3.55	3.02	9
	Communication ability	4.37	3.62	3.17	8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 역량을 3개 영역과 10개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함께 교수학습센터의 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영역 측면이다. 학습자들은 여전히 전문지식분야,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량들은 일회성의 특장이나 워크숍의 형태보다는 튜터링, 스터디, 또래도우미, 학습 포트폴리오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비중을 늘려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영역 측면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글로벌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강의식 형태의 특장이나 워크숍보다는 내용이나 활동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글로벌 역량의 경우, 특장이나 워크숍을 통해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영어학습과 관련하여 직접

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공학습, 취업, 문화공유 등을 위해 외국인 학생과 튜터링, 스터디 그룹으로 짝지어 심도있는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정의적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도 있겠다. 한편 테크놀로지 역량은 미래교육에서 필수적 역량이므로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기술을 교육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내고 표현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겠다.

셋째, 사회영역 측면이다. 전체적인 교육요구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역량은 요구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영역만 놓고 보면, 의사표현능력, 개방성, 타인에 대한 지원과 신뢰 등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들이라 하겠다. 이 부분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Prezi, 인터뷰 스피치, 보이스코칭 등의 특강이나 워크숍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연계하는 등 이미 제공되고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역량이라는 것을 영역,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역량은 단절되어 있는 능력, 지식, 기술이 아니라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19], 하나의 역량과 하나의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매칭되는 개념이 아니다. 가령, 보고서 작성에 대한 특강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면 학습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술적인(technic) 부분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겠지만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과 더불어 태도나 정의적인 측면의 역량도 습득,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해 보면 역량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수준과 활동수준도 다양화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역량별 시리즈 형태의 특강이나 워크숍 또는 중장기적 핵심역량 함양 코스 등을 통한 차별화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도출하고 교육요구도를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1) 각 대학의 재학생이 생각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실제적이며 목적지향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2) 각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더

불어 3) 학습자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주제별, 학년별, 전공별로 제공되는 학습자 중심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역량과 교육요구도에 따른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평가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실제적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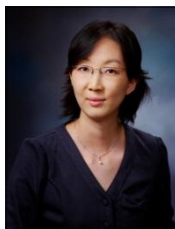
- [1] M. H. Shin. (2018).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On-Off line Convergenc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Students' Learn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85-90.
- [2] Y. W. Jeon. (2014).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dividual Variables and College Life on the Changes of Core Competency*. Unpublished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 S. J. Lee & K. H. Kim. (2017).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individual traits on learning activity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249-256.
- [4] D. C. McClelland.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DOI : 10.1037/h0034092
- [5] R. L. Jacobs. (1989). Systems theory appli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Gradous, D. B(Ed), *Systems theory appli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practice monograph*. Alexandria, V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 [6] L. M Spencer & P. S. M. Spencer.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 [7] DeSeCo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Available at ONLINE LEARNING CONSORTIUM.  
[http://sloanconsortium.org/publications/jaln\\_main](http://sloanconsortium.org/publications/jaln_main)
- [8] A. N. Kim & B. S. Rhee. (2003). An Analytic Study of Identifying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1), 367-392.
- [9] M. H. Shon. (2006). Competence, and Everydayness of Practical Knowledge as Its Practical Foundation. *The*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24(4), 1-25.

- [10] M. S. Jin, Y. M. Sohn & H. J. Chu.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461-486.
- [11] D. I. Kim, H. S. Oh, Y. S. Song, E. Y. Koh, S. M. Park & E. H. Jung. (2009). Explor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from professors' perspectives: A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2), 195-214.  
DOI : 10.15753/aje.2009.10.2.007
- [12] H. S. You. (2002). *The Research on the National Standards of Life Skill and Quality Management for Learning Syste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rch Paper (RR 2004-11).
- [13] Y. H. Kim, J. S. Chung, C. K. Lee & Y. J. Yi. (2010). An Analysis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20(4), 1-20.
- [14] G. D. Borich.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DOI : 10.1177/002248718003100310
- [15] Y. I. Kim, J. H. Jung, C. S. Lee & M. S. Choi. (2001). Educational Needs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for Technological Literac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4(1), 93-107.
- [16] M. J. Park. (2008). Development of Empowerment Scale Instrument and Needs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Teachers'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0(3), 131-143.
- [17] M. R. Eom. (2009). Educational Needs Analysis of Instructional Designers in Korea for Competency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2(1), 1-23.
- [18] S. K. Oh, J. S. Jun & Y. H. Park. (2014). Complementing a Typical Educational Needs Analysis Using a Survey in Setting the Priority of the Need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53, 77-98.
- [19] K. H. Lee. (1995). *Core Competence Management*. Seoul: Myungjin Books.

엄 미 리(Eom, Mi Ri)

[정회원]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방법 문학석사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방법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광운대 교수학습센터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예비)교사교육, 교수설계, 역량, 팀기반학습, 플립드러닝 등
- E-Mail : mreom@kw.ac.kr

최 원 주(Choi, Won 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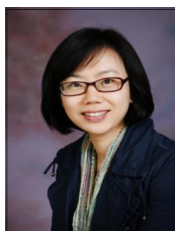
[정회원]



- 200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 2004년 8월 ~ 2008년 8월 :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연구원
- 2008년 11월 ~ 12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컨텐츠지원팀 직원
- 2009년 1월 ~ 현재 : 광운대 교수학습센터 학습지원 담당
- 관심분야 : 학습자 분석, 학습역량 등
- E-Mail : agnet@kw.ac.kr

송 윤 희(Song, Yun Hee)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 2007년 7월 ~ 2010년 6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 전담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융합교육, 집단지성, 스마트러닝 등
- E-Mail : song@anyang.ac.kr